새해, 아직 시작 마세요!

(요5:1~9a)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새해 아직 시작 마세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7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우리의 삶을 새해로 시작하지 마세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정식으로 개인적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배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세배 드리면 예수님께서도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에 예수님과 나누는 인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덕담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덕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비는 말입니다, 잘되기를 기원해 주는 말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을 비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의 잘됨과 못됨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덕담이라는 것이 타인을 향하여 잘되기를 비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덕담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2013년에는 너의 모든 일이 다 잘되게끔 결정했다, 결정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덕담도 안 하시고, 덕담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자로서 결정해 주신다는 말씀도 안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복을 다 받게 해주겠다!’ 이런 거 안 하실 겁니다.

‘모든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해 주겠다’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느냐?

질문하십니다.

성경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예수님의 질문을 대신 드린다면, 예수님의 새해 질문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13년에 네가 행복하시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명확하고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답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복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의 주님께서 물어 보실 때, 그 주님에게 ‘내가 행복하시를 원합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부들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이 ‘예’라고 간단하게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왜곡현상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절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하는 명절은 3번이 있는데, 유월절과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장막절이 있는데, 이걸 구태여 어느 하나의 명절이라고 딱 명시하지를 않고, 원래 절기인데 명절이라고 요한이 표현을 합니다.
명절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뭡니까?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과 느긋함과 흐뭇함이 다~ 종합되어 있는 행복감에 젖는 순간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 기쁨과 만족과 흐뭇함과 느긋함을 복합해 놓은 행복의 시간이 명절이기 때문에, 이 명절을 이야기한 것이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성전이 서 있는데, 그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명절이 되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기대하며 찾아와야 됩니다.
기쁨을 기대하며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명절날 잔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추석 때처럼 아버지 집에 오는 자식들의 마음과 같은 그런 명절인데, 사람들의 마음상태가 다 다르게 되었어요,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면서 기대해야 될 바를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 올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왔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대가 완전히 다 어긋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데 실제로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면서 갖게 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명절인데도, 주님께서 안타깝고 슬프고 다급한 마음으로, 당신이 느끼시는 바를 표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성에 여러 문이 있는 중에 양의 문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쳐져야 될 그 양들이 주로 그 문으로 들어왔는지 양의 문이라고 이름 하는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연못입니다.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움직이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로 입수하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던지 다 낫게 된다고 하는 민간의 신념이 얽혀있는 연못이었습니다.

이건 미신입니다.
본문에 괄호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용한 것이에요.
사도요한이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얽혀있는 신념을 이야기 한 것이고, 이것은 일종의 미신이고, 민간요법중의 하나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명절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 다보면서 뭔가 잘못된 기대감에 차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상태를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고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연못 전체를 하나의 비유적인 세팅으로 채택하셔서, 38년 된 병자를 대상으로 퍼포먼스를 수행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치유의 기적으로 낫게 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믿음이 없어요, 이 남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낫고자 원하느냐고 물어볼 때, 낫고자 원한다고 대답도 하지 않았고 믿음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 당사자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일어나서 이 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을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본인 자신이.

자! 하나님께 찾아올 때 가져야 될 기대가 사라져 버린 잘못된 마음으로 온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것을 들춰내서 표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선민이 사는 사회, 이 세상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퍼포먼스를 수행해 나가시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러한 민간요법과 얽혀있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온 모든 사람들은 병자이고, 그러므로 38년씩이나 그 곳에 머물면서 있던 사람에게 '네가 병이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너무너무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들것에 얹혀 져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에 들어오는 사람을 붙잡고 기자가

인터뷰를 한답시고 '당신이 낫기 원합니까?'라고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이지만 불필요하다해도 명확한 질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므로 대답도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다는 거 자체가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으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있던 이 병자가 지금 예수님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순간에 원하는 것은 낫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었지, 병이 낫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검사가 돼서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10번 떨어졌어요. 이제 11번째 시험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검사가 되기를 원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검사가 되거나 말거나 검사가 되던 변호사가 되던 뭐가 되든지 간에, 우선 이 사법고시라는 거를 붙기나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검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게 아니라, 사법고시를 붙기를 소원하는 거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검사가 되는 조건이 사법고시 아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이 낫는 조건으로 미신이지만,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환자가 병이 낫기를 원하지를 않고, 병이 낫기 위한 조건으로 정해놓은 그 조건 충족을 원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간헐천이라 그래요 간헐천.
간헐천이라는 거는 늘~ 온천이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물이 솟아오를 때마다 물이 움직였다 그러면, 38년 동안 거의 400번이 넘도록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한이 맺히게도 생겼지요.
병 낫는 건 둘째 치고, 정말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가도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몰라요, 그냥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희망이지요.
그런데 400번이 넘도록 시도를 하면서, 밟히고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못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소원이 뭐로 바뀌어 버렸느냐?
물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낫든 안 낫든 내 이 병에 걸려 죽든 말든 물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이 소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상태를 비유적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어그러져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행복이에요.
근데 아~무도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이 간단한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 주님, 사업이 안 됩니다, 뭐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될 텐데 이 사업이 안돼서 정말 걱정입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아! 주님 요번에 우리 아이가 입시시험을 봤는데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들여보낼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기를 원하면 '네'하면 될 것을, 낫는 것의 조건으로 세워놓은, 베데스다 연못사회가 낫기 위해서는 이것이 조건이다라고 세워놓은, 이 조건충족이 소원이지,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가 전부 이렇게 엉뚱한 것이다 이겁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네~'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세상이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그 조건들을 들먹이면서 조건충족을 소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마치 이건 '하나님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들이 딸이 대학입시에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 건강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지마는,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행복하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마시고 행복의 조건을 이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나한테 이루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행복이 내게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전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13년 새해에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아!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계획된 대로 일이 다 잘되게 해 주세요.

다시 묻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대답하세요!
빚더미 위에 있어도 '빚 청산해 주세요!' 하지 말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자식이 대학을 떨어졌어도 다음에 재수해서 자식이 꼭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일이 다 안돼서 사업을 접게 생겼어도, 사업 잘 되게 해 달라고 기사회생하게 해 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빚더미 위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이 행복하게 하실 수 있고, 자식이 대학을 떨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에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치유는,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괴테가 이렇게 말해요
'기쁘게 일하고 자신이 한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또, '행복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욕망을 적게 하던지 재산을 많게 하라'
이게 그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또 뭐라 그러냐 하면, '행복함과 그렇지 못함은 결국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입니다.
하~ 적어도, 행복에 대해서는 저보다 무식하십니다.
행복은 이 세상 안에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이 지구 위에 그 어떤 조건을 인간사회가 만들어놓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지구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없는 불행은 불치병입니다, 이 지구 안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자들이 불치병환자였던 것처럼 불치병입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조건도 다 미신일 뿐입니다.
행복과 연관 지어선 다 미신입니다.

행복은 위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건 주어집니다, 다이렉트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게 행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므로 새해에는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이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어떤 조건?
행복이라는 조건.
행복은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전제조건이에요.
이 세상의 삶에 투입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전제조건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사업 잘해서 행복 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신앙이에요.
행복한 자를 하나님은 사업장에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다면,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노총각 노처녀들 있습니까?
결혼해서 행복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행복한 자를 하나님은 결혼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남자와 여자를 만나지 마세요.
아내와 남편을 만나지도 마세요.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이렉트 행복을 받은 뒤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세요.
행복은 아내와 더불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자가 남편을 만나야 되고, 행복한 자가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자식을 키워서 행복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행복한 자를 자식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전까지는, 자식을 만나 자식을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집니까?
간단합니다.
2013년은 무조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막 손대려고 했던 일, 내가 막 하려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나 혼자 유대의 명절을 나 혼자의 명절로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명절을 지내고, 기쁨의 잔치가 있어지고 행복이 가득 찬 뒤에 비로소 내가 하려고 했던 일, 만지려고 손대려고 했던 그 일을 향하여 나가시면, 2013년은 행복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목표나 목적이 아니라, 행복은 삶에 투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게 다이렉트 행복을, 다이렉트 해피니스를 우리에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행복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명언들이 하나님의 다이렉트 행복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 다이렉트 행복을 십자가 주님과 연합되면서 얻어서, 행복한 자로 언제나 삶에 다가서는 하늘 백성으로 2013년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